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형된 신체 이미지를 통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권은주

# 변형된 신체 이미지를 통한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권은주

# 인 준 서

권은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7년부터 약 3년간 작업한 본인의 작품 중 2009년 10월 개인전(근육 뽑내기) 작품을 중심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을 분석하여 서술한 것이다.

본인이 작업을 해오면서 갖게 된 물음은 주로 예술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예술인가?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작가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본인과 예술의 의미와 결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이 아름다움이라고 가정하고, 아름다움이 예술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아름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이러한 물음의 답을 인간의 몸(살갓)을 통해 찾아보았다. 과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1519)(도판2)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가 인체의 해부와 해부학적 수치들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듯이, 본인은 살갓이 제거된 스킨의 해부를 통해 인간의 몸 중 길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본 것이다.

본인은 몸의 외부적인 요소 즉, 살갓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피부(살갓)는 인간의 중요 감각 기관형태를 둘러싸고 있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 살갓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이 살갓이 제거된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또한 아름다움이 제거된 예술은 그 의미를 어디서 찾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 본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몸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제거된,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내면의 몸으로 규정되어진다. 그것을 위해 아름다움이라 여겨

지는 외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보이는 근육, 피부 속 내면의 세계를 그림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인간의 내면, 주체의 참된 면을 인식하고 의식하도록 하였다. 근육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하여 피부 속 살갓을 들어내어 눈에 보이지 않던 진실, 불편 하지만 모두가 지니고 있는 추의 모습을 들어내려고 했다. 또 해부학적 이미지들을 사용함으로써 남성의 관음증을 박탈하고, 이전 시대 그림 속 남성을 위한 여성의 모습이 아닌 주체로써의 여성을 표현하려 했다. 본인 작품은 과거의 작품을 복제 차용함으로써 ‘과거’부터 내려오는 미의 기준,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깨고자 하였고, 과거 그림 속에서 보이는 여성의 이미지의 차용을 통해 여성이기에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부터 사회 비판적인 시선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벗겨진 스킨과 과장된 근육의 표현을 통해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개념들과 궁금증을 가지고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정리 하였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사 속에서 몸의 의미와 본인 작품 속 몸과 이미지의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질되어가는 몸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야기된 사회문제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인작품연구를 통해 작품 속에서 보이는 외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보이는 내면의 아름다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탐구 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여성을 통해 본 몸의 의미	3
1) 일반적인 몸의 의미	3
2) 미술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몸의 의미	4
2. 미(美)의 의미	7
1) 아름다움의 의미	7
2) 회화에서 보이는 여성의 몸	8
3. 본인 작품 연구	19
1) 작품 속 신체의 의미	19
2) 작품 분석	20
① 미인해부도	20
② 정치인해부도	23
③ 마스크팩 시리즈	26
④ 산수해부도	28
⑤ 근육 뽑내기	31
III. 결론	36

## 참고 도판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미인도(美人圖) I >, 113×82cm, 장지에 채색, 2006.....21
- [작품2]<미소해부도(微笑解剖圖)모나리자>, 70×98cm, 장지에 채색, 2007  
.....22
- [작품3]<청색해부도(靑色解剖圖)욕녀>, 70×98cm, 장지에 채색, 2007.....22
- [작품4]<명박해부도(命薄解剖圖)명박 리>, 70x98cm, 장지에 채색,2008...24
- [작품5]<미친돼지해부도(狂豚解剖圖)>, 130×97cm, 장지에 채색, 2008...25
- [작품6]<미친소해부도(狂牛解剖圖)>, 130×97cm, 장지에 채색, 2008.....25
- [작품7]<마스크팩 시리즈>, 각35×25cm, 마스크팩에 혼합재료, 2008.....27
- [작품8]<산수해부도>, 130×162cm, 장지에 채색, 2008.....29
- [작품9]<노란산수해부도>, 60×60cm, 장지에 채색, 2008.....30
- [작품10]<초록산수해부도>, 60×73cm, 장지에 채색, 2008.....30
- [작품11]<근육뿔내기-자더스>, 130×162cm , 장지에 채색, 2009.....33
- [작품12]<신통한 미술인-정아 신>, 130×162cm, 장지에 채색, 2009.....33
- [작품13]<내털뿔내기>, 160×193cm, 장지에 채색, 2009.....34
- [작품14]<소희가 되고싶은 닭대가리>, 160×193cm, 장지에 채색, 2009...35

## 도 판 목 차

- [도판1] 작가미상,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BC. 3만 년경
- [도판2]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트루비우스의 이론에 따른 인체 비례도>, 34.4×24.5cm, 펜·잉크·실버 포인트, 1490
- [도판3] 혜원 신윤복, <미인도(美人圖)>, 114.2×45.7cm, 비단에 채색, 18세기 말~ 19세기 초
- [도판4] 기타가와 우타마로, <머리를 매만지는 여인>, 39.3×26.3cm, 다색판화, 1792
- [도판5]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53×77cm, 패널화, 1503~1506
- [도판6]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터키탕>, 직경 108cm, 캔버스에 유채, 1863
- [도판7]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쌈>, 165×80cm, 캔버스에 유채, 1856
- [도판8]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130.5×190cm, 캔버스에 유채, 1863
- [도판9] 마르셀 뒤샹, <로즈 셀라비>, 사진(만레이), 76.2×43.18cm, 1920
- [도판10] 프랜시스 베이컨, <Painting>, 198×132cm, 캔버스에 유채, 1946
- [도판11] 게릴라 겐스,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만 하는가?>, 포스터, 1989
- [도판12] 루이스 브루주아, <작은 소녀>, 59.7×26.7×19.7cm, 석고 위 라텍스, 1968
- [도판13] 신디셔먼, <Untitled (Train)>, 172.1×114.3cm, colorphotograph, 1994
- [도판14] 키키 스미스, <Untitled (Train)>, 53×55×168cm, wax with beads, 1994

# I. 서론

미술 속에서 몸의 재현만큼이나 어떤 정해진 시기의 회화장의 모습이나 그 속에 어떤 작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지적해주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sup>1)</sup> 신체 속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흔적들이 새겨진다. 또한 몸은 해부학적 감각과 인상이 부딪치는 장으로 변화하는 미술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몸은 시대와 역사의 흔적 그리고 이 시대의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몸은 인간 경험의 거대 영역이며 때로는 신비의 대상이며 형이상학적 탐구의 대상이고, 개인의 심리적 분석과 내향적 관찰의 터전이며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이데올로기와 미학의 경기장이 된다.<sup>2)</sup>

본인의 작업은 여기서 시작된다. 미술 속에서 보이는 몸의 재현을 통해 그 시대의 당면한 문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시대성과 역사성, 역사적 사실을 몸과 근육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풍속화가 그 시대를 풍자하는 의도를 담듯이 본인은 익숙하고 정형화된 작품 속 이미지들을 차용하여 그 시대성과 문제들을 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받아들이는데 기본이 되는 몸의 의미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정의내리지 못했던 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신체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간과하고 있던 내면의 정신성의 중요함을 논한다. 또한 시대별 몸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변화

---

1) 한림미술관.이대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10p

2) 홍덕선,박규현,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401

되어 오는 몸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예술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더불어 미술작품 속 여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전부터 이어져온 아름다움의 기준, 그 대상이 된 여성의 몸과 현대의 몸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작가연구를 통해 현대에서의 몸과 그 의미,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작품 속 보이는 해부학적 이미지와 변형된 신체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고, 기존의 미술양식 속 익숙한 이미지 차용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사회 풍자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 II. 본 론

### 1. 여성을 통해 본 몸의 의미

#### 1) 일반적인 몸의 의미

몸은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또는 그것의 활동이나 기능 상태를 말한다. 몸은 생물의 한 개체를 일컫는 말로써 좁은 의미에서는 팔다리와 머리를 제외한 신체기관을 몸이라 한다.<sup>3)</sup> 몸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혼과 정신을 담는다고 여겨진다.

우리에게 몸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 논하는 것이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실상 그것은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sup>4)</sup> 근대에 이르러 몸은 이성적 철학자인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메를리퐁티(M. Merleau-Ponty, 1908~1961)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지만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예술사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몸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이며, 곧 인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인류가 시작되고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립 보행으로 진화한 후 ‘인간의 몸’은 본능의 최고의 가치이자 삶의 의미였다.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몸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외부세계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인간과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된다. 몸에 대한 담론은 인간과 인간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존을 통해

---

3) 네이버 국어사전.

4) 홍덕선, 박규현,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21

몸이 갖는 순수한 에너지를 승화시켜 생명력이 가득한 삶과 문화를 향유하는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고대에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제시하는 궁극증을 암호화한 것으로 문제의 핵심은 그 시대와 사회, 문화적으로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이렇듯 몸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주체이며 다른 몸들과 교류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온전한 사회체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물음과도 연결된다.<sup>5)</sup>

## 2) 미술사적 맥락에서 본 몸의 의미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회화는 변화하는 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우리는 몸의 변화와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을 과학에 앞서 그림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회화로 표현된 인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고대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시작으로 정면성을 강조한 이집트의 인물 ‘카논’<sup>6)</sup>이라는 비례법칙을 이용했던 그리스의 인물은 주로 몸동작이나 주요인물이 중심을 차지하였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리스도화, 성모마리아의 회화나 조각이 주를 이루었고, 르네상스시기에는 고전 문헌들의 재발견으로 인해 ‘재생’이라는

---

5) 홍덕선, 박규현,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30

6) 카논: 본래 규범을 뜻하는 말이다. 흔히 조화를 가장 잘 이룬 인체의 비례는 팔등신(八等身)으로, 그것이 카논이다. 팔등신이란 키가 머리 길이의 8배가 되어 몸이 균형 잡힌 미인의 표준을 일컫는 비례이다. 예부터 화가나 조각가가 실제로 인체를 표현할 때 문제가 되어왔고, 시대나 나라에 따라 여러 카논이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체의 입상(立像)을 수직선을 따라 같은 길이로 구분하는 준례가 생겼는데 그 기준이 된 길이는 키의 19분의 1에 해당하는 가운데손가락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많은 조각가들이 카논을 연구, 특히 폴리클레이토스가 《카논》이라는 책을 저술(현존하지 않음)하였음은 유명하다.

뜻의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가 재탄생하게 된다. 이후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1519)나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의 해부학 연구에 힘입어 이전에 몸에 관해 갖던 지극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벗어나 균형 잡히고 해부학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근대에 이르러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과 함께 몸과 마음을 구별, 몸은 마음에 의해 통제된다는 이전과는 다른 독창적인 이원론을 내세운다. 이원론은 이미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 BC428/427~348/347),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등에 의해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데카르트는 형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윤리성을 담지하고 있는 듯한 영혼의 인식론적 차원의 마음(정신), 즉 사고하는 의식으로 대처한다. 이로써 근대의 이원론적 인식론이 적립하게 된다. 신고전주의에 이르러서는 절대군주 시대로 영웅적 남성미를 풍기는 그림이 성행한다. 또한 정신과 육체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나뉘어 인식되었고, 정신은 합리성을 대변하는 이성의 본질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육체는 수동적인 욕구 기관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문명은 극도의 공포와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것은 다다이즘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폐품이나 기계의 부속품들을 사용해 몸을 구성하고 몸과 기계와의 혼합으로 현대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심화된 심리학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점차 사실적인 외관을 상실해간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 영역으로부터 관념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형식주의 모더니즘 미술이 주류 미술동향으로 자리 잡게 되어 몸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멀어져 갔다. 몸을 육체적인 존재보다 정신과 의식의 주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미술에 영향을 주고 육체보다 ‘정신’이 강조되면서 자연히 육체의 중요성을 떨어지게 된 것이다. 20세기 두 차례의 전쟁이 지

난 후 이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소외되어 왔던 인간성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작업이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바디아트(body art)<sup>7)</sup>나 퍼포먼스등 신체를 활용하는 작업으로 이어져 왔고, 이는 중요한 미술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그들은 그림, 조각, 영화, 비디오, 사진 등을 포함한 여러 장르의 매체를 이용하여 몸을 기괴한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인공적인 몸, 해체된 신체, 통속적이고 키치<sup>8)</sup>적인 재현을 과감히 시도하며 신체와 젠더,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다.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몸은 자연에 속한 것이기 보다 사회의 코드를 따르는 문화적 산물로써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 작가들은 이성과 육체의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이성과 도덕의 극복을 통한 자아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작가들은 자신의 몸으로 사회 속에서 몸을 표현하고 사회를 들어낸다. 몸을 통해 무엇인가를 들어낸다는 것은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된다. 미술 안에서 몸은 다양한 방식에 따라 변화하며 역사의 흐름과 함께 기록되고 해석됨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역사의 흔적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 몸을 통해 시대,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몸을 확인할 수 있다.

---

7) 개념미술에서 발전한 것으로, 모든 과학이 정신구조와 육체구조의 인과관계의 도식화를 방법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비헤이비어 아트는 특수한 예를 들어 육체의 운동 및 변화의 여러 조건을 나타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순간의 육체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8) 속악한 것,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버 등을 뜻하는 미술 용어로써 예술가들 사이에서 '물건을 속여 팔거나 강매한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갈수록 의미가 확대되면서 저속한 미술품, 일상적인 예술, 대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 2. 미(美)의 의미

### 1) 아름다움의 의미

영어의 Beauty, 한자어의 美, 우리말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대상의 특성으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화의 상태이다. 즉 감각, 특히 인간이 보고 들음을 매개로 얻어지는 기쁨, 쾌락의 근원적 체험을 주는 모든 아름다움을 말한다. 전통미는 다시 크게 자연미와 예술미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연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미를 일컫지만 미학적으로는 예술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실생활에서 체험되는 미, 인위적이지 않은 미 모두를 가리킨다. 반면 예술미는 예술작품에 속하는 미로, 인간이 미적가치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자연소재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것에서 비롯된 미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감각적 쾌감을 의미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9)

아름다움의 역사에는 항상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함께 존재하여 왔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듯이 아름다움(미)이란 단어는 여성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여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여성에게 미란 암묵적인 강요와 시기, 질투를 이끌어낸 감정이기도 하다. 미는 촉각, 후각보다 시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발달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반복된 이미지의 시각화를 통해 문화를 대중화, 세계화 시키고 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 가운데 가장 예쁘고 건강한 즉, 성적인 이미지의 육체는 대중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이며 아름다움의 욕망은 이전보다 점점 더

---

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docId=109417422&qb=7JWE66aE64uk7JuA7J20656AIoyduOqwhOydtCDripDrgbzripQg7Jes65+sIOqwkOqwgeykkSDtlZjrgpjsnbTrqbAulOuztOuKlOqyg+qzvCDrk6PripTqsoPsnYQg66ek6rCc66GcIOyWu+yWtOyngOuKlCDquLDsgag=&enc=utf8&section=kin&rank=1&sort=0&spq=0&pid=guuwJv331xlssu2CWCZssv--250070&sid=TCCvaHl8IEwAABUdZ5Y>

커지게 된다. 현대의 몸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화장, 다이어트 등을 통한 인위적인 신체이다. 더 이상 보이는 대로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잊히고 인위적이고 잘 만들어진 것이 사실인 듯 보이게 된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본인은 이 질문의 답을 회화 속 몸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다.

## 2) 회화에서 보이는 여성의 몸

몸이나 미의 관한 인식은 시대와 배경, 나라,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미술 속 몸의 흐름이 변하듯 미의 기준 또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동, 서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 몸의 개념에 대한 입장을 몸과 정신을 분류하는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파악하였다. 인체는 변화하고 소멸되어 물질성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정신 쪽에 훨씬 무게를 두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정신과 몸의 상호 작용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등장하게 된다.<sup>10)</sup> 서양과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몸의 의미를 처음부터 자연 또는 몸과 마음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양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정신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은 언젠가 소멸되고 그와 함께 정신도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였다.<sup>11)</sup>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처럼 미에 대한 기준 또한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과거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도판1), 헤원 신운복의 ‘미인도’(도판3),

---

10) 미와 마사시, 『몸의 철학』, 서동은 역, 해와달, 2002. p14

11) 김용옥, 『동양 氣 철학/모든질리, 인간의 몸속에 있다』, 동아일보, 1997.10.14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판5), '앵그르의 '샘'(도판7)등을 통해서 시대와 동, 서양에 따른 미인에 대한 기준,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대별 회화 속 여인들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서양에서는 고전주의시대나 빅토리아시대 같은 경우 나신을 그리는 것 자체가 천대 받았지만, 르네상스이후 과학적인 사고가 태동하고 몸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누드화를 본격 예술장르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대체로 여성의 누드그림이 주를 이뤘는데, 이전시대 그림들은 귀족들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에 거래되고 그려졌고, 시대분위기가 엄숙하고 자유롭고 과거 분위기에 익숙한 귀족 사회였다. 하지만 부르주아라는 귀족이 나타나며 비교적 자유롭고 덜 고상한 신흥 귀족들로 인해 내제된 욕망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양의 여인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유희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높은 계급의 남성들을 위한 합법적인 예술 활동으로 여겨졌으며 옷 속에 가려 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세상의 중심은 남성이었고, 인간의 기본 형태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이상은 남자의 몸이었다. 고대 조각들에서 보이듯 인체의 비례나 이상적인 몸은 오랫동안 미술의 테마로 남자의 육체를 다루고 있다. 현대인은 누드화라면 나부를 떠올리겠지만 별거벗은 여성이 예술에 등장한 것은 1500년 경이었고, 17세기 이후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등이 뽀얗게 살집 좋은 여체를 그리는 등 여성누드가 미술의 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옷 벗은 여자 그림이 많아진 18세기 로코코(Rococo)시대에도 여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슬픔에 잠긴 채, 당당한 주체라기보다 남성의 성적 대상으

로 묘사 되었다. 대표적으로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극히 남성 주의적 시각으로 그려진 것인데 그림을 소유하던 이들의 권력을 보여 주듯이 탐스러운 여체를 표현함에 있어 남성의 눈을 자극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보인다. 신고전주의의 대가인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1780~1867)의 작품 속 ‘샘’, ‘터키탕’(도판6, 7)등을 보아도 그림 속 여성들도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 있든 누워있든 여성들의 누드포즈는 한결같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꼬고 있는 최대한 여성적인 포즈이다. 이 당시 여체는 그리스의 철학적 이상을 유지한 채, 인체의 이상적인 비례와 균형이 우아함과 천상적인 아름다움, 고전적 이상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신체의 ‘미’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된 ‘완전한 인체’에 대한 이념과 비례탐구는 미술작품들을 통해 고전적 전형을 성취하게 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누드는 미술의 중심소재가 된다. 이렇게 완전한 신체의 전형은 자본주의와 소유의 개념이 일반화된 근대기를 거쳐 시각적 관능미를 보이는 여성의 누드로 변질되어 오늘날까지도 상업적 이미지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여성신체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1865년 그려진 마네(Edouard Manet, 1832~1883)(도판8)의 올랭피아 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미의 규칙에서 배제된 여성이 등장한다. 올랭피아는 고전적 누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인체의 조화로운 형태와 색감보다 당돌한 시선과 포즈, 저급한 치장 등 상품화된 여인에 대한 관음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체의 모델을 찾기 위해 신체의 비례와 명암의 구조를 연구하던 고전 방식이 아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체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sup>12)</sup>올랭피아가 기존의 누드와 다른 또 한 가지 특징은 포즈이다. 올랭피아는 일부러 몸을 비틀도록 하여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는

---

12) 한림미술관. 이대 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p11

잠을 자거나 시선을 은근히 피하지도 않고 똑바로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다. 이는 최초로 신화적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작가의 해석이 포함된 신체로써의 모습이 보인 작품으로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솔직한 작품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그림 속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유희를 위한 것이었고, 외적인 진실만을 표현한 작품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성의 몸을 그린 것은 동양에서도 존재하여 왔다. 하지만 그 의도와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동양의 누드는 ‘춘화’라고 이름 붙여져 본격 예술장르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미를 나타낸 대표작은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도판3)이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동, 서양의 미의 기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련된 필치와 섬세한 기법으로 그려낸 신윤복의 미인도는 뛰어난 솜씨로 현실의 생활과 정서를 유려한 선과 색채로 한국인의 골격과 표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신윤복의 사실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림으로, 머리는 트래머라고 하는 가발을 없어 장식하고 저고리 춤이 짧고 너비가 넓은 치마를 입고 삼작노리개와 고름을 수줍은 듯 매만지고 있는 젊은 여인을 묘사하였다. 동그랗고 자그마한 얼굴에 둥근 아래턱 다소곳이 솟은 콧날과 좁고 긴 코 약간 통통한 뺨과 아담한 입, 가느다란 눈썹에 쌍꺼풀이 없이 긴 눈, 귀 뒤로 하늘거리는 잔 귀밑 머리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인상을 보여준다.<sup>13)</sup> 한편 기법 상으로 볼 때 얼굴의 묘사에서 입체적인 표현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단지 선으로 간명히 그리고 있다. 혜원의 작품은 독특한 해학과 에로티즘의 경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권력이나 조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민들 속에 살면서 서민들의 관점과 애정을 과감히 화단에 담아낸다. 그가 주목받는 것은 비단 여성의 신체를 그리고 벗겨냈다는 점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신분체계의 와해,

---

13)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2002

사치와 향락 풍조가 만연해져 가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작가 의식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끈다. 뇌쇄적인 모습을 한 여인들의 풍속에는 부조리한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는 은장도가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혜원의 풍속화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애정문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것이 사회에 부각된 안팎의 갈등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 이렇듯 신윤복의 풍속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솔직하게 반영함으로써 예술이 갖는 아름다움으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학적으로 나타내며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여인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약자들의 상황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함을 벗겨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사회의 실학발생과 서양문물의 유입, 서민문화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신윤복이 보여준 대담함은 예술가로서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 의식이 담겨져 있다. 그의 신분에 대한 불합리함을 나타낸 사회고발적인 측면과 예술가의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자유 의지를 실천하여 표현하려고 한 점은 본인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 민화가 있다면 일본에는 우키요에가 있다. 우키요에는 17~19세기 일본 서민층에서 유행한 풍속화이다. 우키요에는 에도시대에 이르러 서민의 경제력 향상과 상업발달, 그리고 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키요에 화화는 야쿠샤에<sup>14)</sup>, 미인도, 춘화 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처음은 풍속화로 시작되었으나 점점 배우나 게이샤 등 인물묘사로 변해간다.

우키요에 라는 말은 그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에도시대 중덴나연간(1681~1684)에 비로소 정착된 새로운 미술용어로, 이 무렵 ‘우키요

---

14) 우키요에 판화의 한 장르로 한명에서 3명정도의 가부키 배우와 무대모습, 평상시모습 등을 그린것이다.

소시'라는 소설형식과 함께 '우키요'그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우키요'라는 단어는 앞선 시대까지 일반적으로 '근심스런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근세에 와서는 '잠시 머물 현세'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sup>15)</sup> 우키요에는 주로 유곽의 유녀들을 그린 미인화가 많았으며 당시 우키요에의 미인화는 에도사람들에게는 연예인의 브로마이드 같은 구실을 했다. 부자들은 미인의 모습을 육필화로 주문하여 소중히 감상 하였고, 서민들은 판화를 구입하였다. 또한 미인들의 머리와 모양, 복색은 일반여성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된다. 일본의 미인화는 당대의 미인들을 담았다기 보다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적 모습을 담은그림이다. 우키요에의 미인도는 독특하게도 여인의 뒷모습을 담은 것으로 더 유명하다.(도판4) 여인의 뒷모습에 대한관심은 우키요에 미인화가 개척한 독특한 영역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거울이다. 그림에는 거울에 비친 여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거울 미인'은 여인의 자아도취를 야릇하게 들어낸다. 판화의 장점덕분에 우키요에는 그 당시 생활과 정보전달을 위한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6)</sup>

우키요 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락주의적인 인생관을 바탕으로 음란한 호색분위기가 농후하게 강조된 현실이 우키요와 가장 걸맞은 말로 쓰이기도 한다. 봉건 신분제도의 강력한 틀에 규제받던 사람들이 본연의 정념 또는 미의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던 장소는 유흥가였다. 에도시대의 이러한 유흥가의 풍속을 바탕으로 미술과 예술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 우키요에는 에도시대 말부터 일본 밖으로 대량으로 유출되며 19세기 후반 자포니즘 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뿐 아니라 유럽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sup>17)</sup>

15) 고바야시 다다시, 『우키요에의 미』, 이다미디어, 2004. p16

16) 이연식,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아트 북스, 2009. p8-9.

이러한 동, 서양의 인체에 대한 접근과 회화적 표현들은 근대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사회가 인간의 몸에 대하여 생각한 아름다움과 신비주의는 미술의 소재로서 의미가 없어지고 단지 껍데기인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몸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20세기 초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은 이따금 재미로 여장을 하고 타인 행세를 했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로즈 셀라비(Pose Selavy)(도판9)라고 명명하였는데, 셀라비란 '그것은 인생(C'est la vie)'에서 따온 말 이었다. 만 레이(Emmanuel Rudnitzky, 1890~1976)는 뒤샹의 여장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을 보면 뒤샹은 양손에 반지를 끼고 털목도리를 들렀으며 얼굴에 화장을 하였는데 실제 여자를 방불케 했다. 그의 원래의 모습은 마치 흉악범처럼 보이는데 여자로 분장하였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 처럼 보였다. 자신을 여자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8)

“ 사실 난 나의 신분을 바꾸고 싶었다. 처음에는 유대인 이름을 사용하려고도 했다. 난 가톨릭 신자이므로 그렇게 되면 종교를 바꾸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유대인 이름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예 성(sex)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로즈 셀라비’라고 한 것이다.”

이때 셀라비는 셀라비(C'est la vie,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문장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이다. 뒤샹의 사진은 그 자신의 말대로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어진 성으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번 짚은 살아가는 동안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성을 바꾸고 싶거나, 동성끼리

---

17) 고바야시 다다시, 『우키요에의 미』, 이다미디어, 2004. p16

18) 김광우, 『워홀과 친구들』, 미술 문화, 1997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뒤샹의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시킨 뒤샹의 아이디어는 이미 전통적인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르게 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 작가는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도판10)이다. 그의 그림 속 보이는 인체는 변형들로 인해 다분히 동물적인 특색을 지닌다. 그는 인물들로부터 얼굴을 지우고 분해하고 붓질을 가함으로써 인체간의 형태는 상실되고 오히려 짐승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정체불명의 존재로 드러나게 한다. 표면과 내면, 살과 고기와 뼈가 무작위로 뒤엉킨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내장기관까지 섞이지 않아도 한 겹 가죽만 벗기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 진다.<sup>19)</sup> 이렇듯 베이컨은 인간의 생존이라는 동일선상에서 몸과 살덩어리를 보았고 살을 통해 이러한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적인 그림을 그려낸다. 베이컨에게 인간의 개념은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현존재의 의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위나 존엄성도 배제되어 있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육체의 이미지 시각과 현실이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이미지의 그림이 최초 질료로써의 이미지가 그 핵심이다.<sup>20)</sup> 그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인간 내면의 문제와 그런다는 본능적 행위의 추구 속에서 실재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부분은 본인이 추구하는 표현상의 내용이나 주제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베이컨은 르네상스시기에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의학적 해부도가 성행한 이래 또 다른 형태의 해체된 몸의 해부도를 보게 한다. 그가 시도한 것은 인체의 신비가 아니라 몸을 주축으로 하는 주체의 신비를 야멸치게 해체하는 일이었던 것이다.<sup>21)</sup>

---

19) 심상용, 『현대미술의 욕망과 상실』, 현대미술사, 1999. p258-259

20) 크리스토 도미노, 『베이컨-회화의 괴물』, 성기완 역, (주)시공사, 1998. p52

21) 홍덕선, 박규현,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453

1970년대 후반은 모더니즘 패러다임이 붕괴되던 시기인데, 그 가운데 특히 두각을 나타낸 움직임이 페미니즘이었고, 그 결과 여성의 신체는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후기 모더니즘에서 페미니즘(Feminism)<sup>22)</sup>과 사진 매체는 신체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것은 성(Sex)을 구체적인 학문으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기 모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성(Sex)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두고 여성을 축으로 미술을 전개 하였다. 이것은 현대 페미니즘이 과거와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sup>23)</sup>

이러한 페미니즘의 움직임은 1985년 예술에서의 남녀차별을 반대하는 예술단체인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 1985~)(도판11) 로 이어진다. 이들은 주로 고릴라 탈을 쓴 이미지로 포스터를 통해 성차별, 인종 차별 등을 반대한다. 게릴라 걸스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포스터는 앵그르의 아름다운 여성누드 작품<오달리스크>를 패러디한 것이다. 1989년에 만들어진 이 포스터는 “여성이 미술관에 들어가면 벗어야하나” 라는 질문에 ‘미국의 미술관의 현대 미술 섹션에 여성 예술가는 5%밖에 안 되지만, 누드화의 85%는 여성이다’라는 말로 미술관과 크게는 전체 미술계를 비판하였다. 여성이 그림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림 그리는 주체로서 미술관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 작품 속에서 ‘신체의 단편’은 새로우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띤다.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1911~)(도판 12)의 조각에서 신체의 부분을 보여주는 오브제는 모더니스트들의 합리성과 형식주의자의 추상성을 반격하기 위함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유아적 욕망과 젠더적 내용으로 보인다.<sup>24)</sup> 그녀는 유년시절을 바탕으로 모든 작업이 이

---

22)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

23)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재원, 1998

24) 린다 노클린,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정연심 역, 조형교육, 2001 p83

루어 지는데,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하고 유년의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작업화 했다. 조각의 도구들을 남성성을 상징하며 그녀는 도구를 통해 두려움을 파괴하고 창조하며 싸워나갔다.<sup>25)</sup> 1970년대 말~80년대 중반의 신디 셔먼(Cindy Sherman, 1954~)(도판13)은 이전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중심의 정통적 여성의 아름다움을 거부한다. 신디 셔먼의 작품은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주입되는 여성의 이미지들을 패러디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사회 구조의 힘을 교묘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녀는 영화나 TV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있는 셔먼의 작품은 여성의 정체성과 젠더 구성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 작업으로 해석되어 왔다. 자신의 몸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는 퍼포먼스적인 측면,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판의식 사진매체의 새로운 활용 등 셔먼의 작품은 당대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셔먼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시기함으로써 기존의 금기와 한계를 넘는다. 그녀는 신체에 대한 파격적 해석을 통해 그로테스크(grotesque)<sup>26)</sup>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녀에게 신체는 이전 시대에 보이는 남성을 위한 신체가 아니다.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녀는 신체를 절단하고 파괴함으로써 여성을 위한 여성의 신체를 되찾으려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키키스미스(Kiki Smith, 1954~)(도판14) 또한 여성의 섹시함과 에로틱 판타지를 그들의 욕망에 복무하는 대신 여성의 몸을 가부장적인 시선으로부터 떼어내어 그들이 살아온 몸의 체험 그대로 되살려 내는 시도를 한다.<sup>27)</sup> 그녀는 오래도록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한 여인이 정당방위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그녀는 막다른 상황에 이른 인간에게

25) 제미란, 『길위의 미술관』, 문화미래이프, 2007, p243

26)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

27) 제미란, 『길위의 미술관』, 문화미래이프, 2007, p26

‘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저명한 미니멀리즘 조각가인 토니 스미스의 딸로 태어난 키키 스미스는 아버지의 죽음과 에이즈로 죽은 언니의 질병에 대한 강박이 작업에 묻어나기도 한다.<sup>28)</sup> 그녀는 여성의 몸을 조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불안정한 몸, 그 유동적인 여성의 상태를 ‘흐.른.다.’는 성질을 통해 보여준다.<sup>29)</sup> 그녀에게 인체는 의식(정신)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을 접하는 일차적인 수단이었고 신체를 심미적인 관점이 아닌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녀는 늑골, 자궁, 근육, 난자, 정자 등의 비가시적인 신체부위를 재현 하였고, 체액과 배설물 등 터부시되는 신체의 분비물을 적나라하면서 그로테스크하게 다루었다. 몸의 모근 구멍에서 일제히 토하듯 쏟아내는 이 같은 현상을 억압된 내면의 폭발을 그려낸 것이다.

이들은 재현의 ‘대상’을 몸의 외피로 계승한 과거의 미술양태들 그 실태를 비꼬고 있으며, 여성이 ‘소재’일뿐 주체로 들어나지 않았던 미술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작가의 작품은 그 표현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녀들이 취한 사회에 대한 제스처는 본인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

28) 제미란, 『길위의 미술관』, 문화미래이프, 2007, p22

29) 위의 책. p30

### 3. 본인 작품 연구

#### 1) 작품 속 신체의 의미

본인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들 중 외부로부터 우리의 존재와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피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부는 뼈와 주요 감각 기관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로를 인식하는 걸모습으로 보여진다. 몸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얇은 막의 접경선을 베끼면 몸의 내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불투명한 막을 투명하게 만들면 우리는 몸의 피부와 내부기관을 보게 된다. 본인은 이것을 인간의 진정한 나체라 보았다. 여기서 나체란 몸의 위장물인 옷을 벗음으로서 본래의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체가 되는 것은 문화에서 자연으로의 환원이고 제작된 자아로부터 본래적 자아로 부터의 회복이다. 본래 나체란 옷을 벗었을 뿐 옷인 상태 즉 살로 된 옷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본인은 이러한 나체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피부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서 비로소 드러내는 몸의 내부를 보여준다. 피부의 내면을 본다는 것은 현실로는 불가능 하지만 여기서 본다는 것의 의미는 시각의 인식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를 의미한다. 우리는 한 커플 벗긴 내부의 몸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가려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기에 더욱 두렵다. 몸의 내부의 모습은 물질체로서의 외면에 반대되는 정신의 영역으로 보이는 것이다. 거울로 보는 몸은 그저 외견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우리 몸의 내부세계나 주체의 참된 면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한 커플 벗긴 스킨을 통해 몸과 감추어져있던 내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2) 작품 분석

### ① 미인해부도

본인의 초기작품은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 정의 내려진 고전적 대가의 작품을 차용하여 그린 것으로 시작으로 한다. 여행 중 보았던 게이들의 모습을 보고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은 내면의 모습까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살갗을 벗긴다는 것은 가려졌던 진실을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본인은 이러한 행위를 살아가며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에 접목시켜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의도로 사용한다. 본인은 해부학적 이미지들을 이전시대 작품 속 인물의 얼굴과 몸에 한 커플 벗겨진 빨간 스킨을 합성시킴으로써 기존의 아름다움이라 여겨져 왔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하였다. 근대 사회까지 여성의 몸은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남성에게는 유희의 대상, 장식품으로서의 몸의 의미를 지녔다. 최근에 이것은 소비 주의적 관점에서 가꾸어 지는 것을 갈망하며 아름다움, 섹시미등 성적인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변지고 있다.

기존의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는 본인 작품 속에서는 보기 좋고 웃음 짓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기존에 아름다움이라 여겨지는 이상화된 여성의 몸은 모두 빨갛고 징그런 근육으로 표현 되어 진다. 걸모습은 단지 내적인 것 즉 진실 된 것을 덮고 있는 하나의 천일뿐, 한 꺼풀 벗고 나면 모두 다 추한 근육덩어리일 뿐 그곳에는 여성도 남성도 흑인도 백인도 아름답고 추함도 들어나지 않는다. 그저 빨간 징그러운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는 걸모습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하기 전 그 내면을 진실로 바라보아야 한다.

## 작 품 도 판



[작품1]<미인도(美人圖) I>, 113×82cm, 장지에 채색, 2006



[작품2]<미소해부도(微笑解剖圖)모나리자>, 70×98cm, 장지에 채색, 2007



[작품3]<청색해부도(青色解剖圖)욕녀>, 70×98cm, 장지에 채색, 2007

## ② 정치인해부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사회문제로 시작된 정치인시리즈는 외모로 판단되는 여성과 다르게 외모는 우습지만 능력과 머리로 판단 받는 남성들 중 대통령들의 얼굴을 해부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모두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의 추악한 면과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본인은 이 감춰진 이중성을 드러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편하게 지내는 것에 익숙하고 보기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에게 감춰 왔던 것을 들춰낸다는 것은 낯설고도 불편한 일이다.

본인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진실은 가려진채 거짓된 틀 속에 감춰진 그들의 이야기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살아가며 부딪치는 사회문제를 건드리며 겉모습(거짓) 속에 가려진 근육(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유명한 정치인들의 빨갱게 해부된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린 진실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상기시켜서 질문을 던져 지금의 정치와 사회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자 했다.



[작품4]<명박해부도(命薄解剖圖)명박 리>, 70x98cm, 장지에 채색, 2008



[작품5]<미친돼지해부도(狂豚解剖圖)>, 130×97cm, 장지에 채색, 2008



[작품6]<미친소해부도(狂牛解剖圖)>, 130×97cm, 장지에 채색, 2008

### ③ 마스크팩 시리즈

마스크 팩 시리즈는 기존의 마스크 팩에 얼굴 근육 모습을 그려 넣은 것으로 일명 ‘근육혈액 마스크 팩’으로 불린다. 본 팩의 효능은 풍부한 혈액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가려진 스킨 속 근육들을 생기 있게 살려줌으로써 거칠고 건조한 스킨 속에 가려진채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기존의 외모를 가꾸는 용도로 사용되는 팩은 여기서 진실을 가리는 가면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 마스크 팩을 사용한다. 이것은 미를 갈망하고 오래 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가죽 속 감춰진 추함을 숨긴 채 겉으로 들어나는 모습만 가꾸고 아름다워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작업 속 마스크 팩은 사용함과 동시에 내면의 추함을 들어냄과 동시에 피부가 아닌 마음까지도 정화시키는 내면이 깨끗해지는 마스크 팩으로 사용된다. 마음을 예뻐지게 하는 마스크팩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작품7]<마스크팩 시리즈>, 각35×25cm, 마스크팩에 혼합재료, 2008

#### ④ 산수해부도

현대사회를 사는 지금 우리는 대중매체 속 이미지들의 홍수 속에서 잔혹한 일상의 폭력 사건 이미지들은 어느덧 익숙함으로 보여진다. 하루에도 수없이 진실들에 대한 이미지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는 이내 잊혀져 버리고 만다. 어린이들조차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무차별한 욕망으로 일어난 안양어린이 예술 혜진 이의 죽음으로 이 작업은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해부와는 다르게 산수해부에서는 해체된 인체가 나타난다. 2008년 3월 안양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혜진이와 예술의 피살사건은 수사결과, 예술양과 혜진양이 토막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혜진양은 수원 호매실IC 인근 야산에, 예술양은 시흥시 시화호 주변 군자천에 유기되었다.

흔히 전통적인 산수화는 명당도와 문맥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산수화가 우리나라의 명당을 찾아 그 명당의 형태를 그린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인체의 명당 지점을 찾아 일명 ‘인체명당도’를 그려냈다. 산의 면당지점과 인체의 명당 지점을 접목하며 근육을 모티브로한 근육산수를 그려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희망했다. 사회적인 약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보호 해줘야 할 어린이들의 죽음에서 현실이 처한 상황과 모순을 그녀들이 죽어 버려진 강과 산을 통해 죽어 찢겨진 어린아이들의 근육들에 피지 못한 꿈들이 신체의 세포들을 통해 다시 피어나게 했다.



[작품8]<산수해부도>, 130×162cm, 장지에 채색, 2008



[작품9]<노란산수해부도>, 60×60cm, 장지에 채색, 2008



[작품10]<초록산수해부도>, 60×73cm, 장지에 채색, 2008

## ⑤ 근육 뽑내기

<근육 뽑내기>에서는 과장된 근육을 통해 인체를 나타내었다. 근육은 남성들이 지니는 전유물 같은 것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과는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근육은 현대의 남성들에게 여성의 아름다움 몸매만큼이나 필요한 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외피에 관한 집착을 과장된 근육을 통해 표현하였다. 일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보다는 과장된 근육은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몸을 보고 있지만 낮설고 징그럽게 보여 진다. 초기 작품에서 빨간 고깃덩어리에 비유되던 인간내면의 진실은 과장된 근육을 통해 다시 한 번 보인다. 다 벗은 여성의 몸을 더 벗기는 것, 남성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처럼 보이는 근육을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남, 여에게 요구되는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문제를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권력과 부조리함이 더 커져버린 사회에 대한 풍자를 과장되고 부푼 근육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근육 뽑내기>속 인체들은 이전의 명화를 차용한 인물이나 정치인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아니다. 이 작품속의 인물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예메한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익명의 인물들이다. 과장되어 부푼 근육은 남성의 모습을 상징하지만 요염한 자세나 속옷들은 여성임을 상징한다. 본인은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거세함으로써 본인이 초기작품에서 부터 말해오던 근본적인 인간의 차이들을 없애고, 인간은 겉은 다르지만 안은 모두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디빌더들처럼 모두 자신의 근육들을 뽑내고 있지만 보는 우리들은 그것이 모두 고깃덩어리처럼 보이고 과장된 근육은 혐오스럽게 까지 보인다. 또한 여러 상징물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강조하였는데, (작품13)에서 보이는 모피는 여성의 부를 표현한 장치로서 커져버

린 남성들의 권력과 여성의 부를 상징하는 모피를 결합해 서로 대비됨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전시대와 다르게 상승된 여성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부폰 근육이 말해주듯 여전히 권력과 억압 속 약자의 여성의 모습이다. 또한 거짓되고 추악한 진실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가면은 본인의 마스크 팩 시리즈에서 보였던 의미처럼 나를 가리고 본인의 진실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가면속의 모습처럼 우리는 권력과 부를 앞세운 채 진실한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작품11, 12)는 여성의 무기인 아름다움을 이용한 추악한 진실을 밝힌 것이다. 아름다움을 이용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자더스와 예술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신정아의 모습을 그림으로서 여성의 욕망이 가지고온 사회문제를 커져버린 근육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것은 여성이 몸이 무기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그림14)은 상품화된 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불러온 사회문제를 논하였다. 성이 상품화되고 그 대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유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아이돌 그룹의 특정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어른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에 대한 문제를 닭대가리를 비유해 나타내었다.

본인의 작품은 해부학적 이미지, 특히 근육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많이 보여진다. 양과 껍질을 벗기듯 살갓을 벗겨 그것의 근육을 그리는 행위는 진실을 벗겨낸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인의 붓을 통해 겹으로 칠해지는 근육들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항변이며 사회 부조리함에 대한 질타이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칼 대신 붓을 든 것이다.



[작품11]<근육뽐내기-자더스>, 130×162cm , 장지에 채색, 2009



[작품12]<신통한 미술인-정아 신>, 130×162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13]<내털뿜내기>, 160×193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14]<소희가 되고싶은 닭대가리>, 160×193cm, 장지에 채색, 2009

### Ⅲ. 결 론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인체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기존의 회화 속 모습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광고와 TV는 많은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정해진 미에 관한 관념과 기준을 제시하며, 현대인들은 그것을 빠르게 흡수한다. 우리는 진정 봐야하는 진실의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것이 진실인 듯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거짓된 모습이 진실인 듯 포장되는 것이다. 작가들은 수많은 미디어의 발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외모지상주의, 성적인 몸, 마약, 에이즈 등 사회문제들을 자아를 상실한 몸을 통해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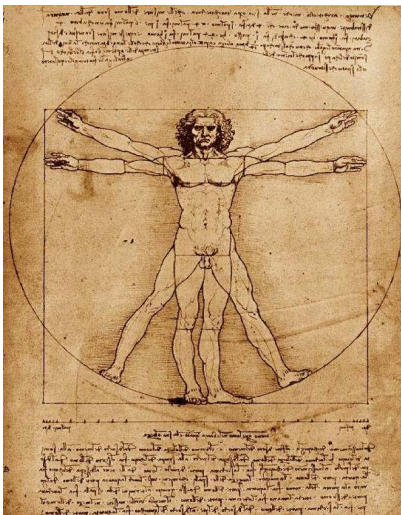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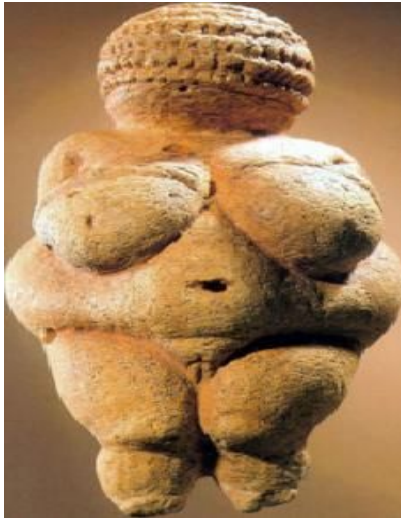
본인은 여성의 성 상품화와 사회적인 불합리한 문제들을 인체 해부학적 이미지를 통하여 상징화 하고자 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의 베일을 벗긴다는 것이다. 본인의 벗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누드’로써의 의미가 아닌 인간 내면을 벗긴다는 것으로, 베일을 벗김으로써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실재하던 우리의 친숙함, 너무 나도 익숙해져 당연해진 것들로부터의 탈피를 말하는 것이다. 베일을 들추는 것은 보지 못한 낯선 세계를 권장하는 것으로 내면의 필연성에 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한 인간은 외적인 것만을 쫓아가고 있지만 결국 인간은 내면적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관의 형성 과정과 방법, 차용된 이미지들에 관한 설명을 통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에 관한 진실을 말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흔들리는 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신체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대별 미술사적인 흐름을 통해 몸이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대

의 중요한 몸의 의미를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의 시작과 동기,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둔 외피 즉 살갓과 표면인 근육이미지를 통한 인간의 내면을 보려는 시도와 대상으로써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과 미의 본질을 찾고자 하였고, 외모지상 주의와 여러 사회문제들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본인의 작품은 살아가며 부딪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을 몸을 통해 나타낸다. 여성의 미와 몸을 통해 사회적인 측면을 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지만, 그 당시 사회가 지니는 문제점을 논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미’와 사회에 관한 ‘비틀기’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아름다운 몸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의 진실 됨, 편한 것들 속에 묻혀있는 조금 불편한 진실들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작과정을 통해 ‘근육’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와 동시대성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는 연구 과정으로 남을 것이다.

## 참 고 도 판



[도판1] 작가미상,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BC. 3만 년경 .

[도판2]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트루비우스의 이론에 따른 인체 비례도>, 34.4× 24.5cm, 펜·잉크·실버 포인트, 1490.

[도판3] 신윤복, <미인도(美人圖)>, 114.2×45.7cm, 비단에 채색, 18c말~ 19c초.



[도판4] 기타가와 우타마로, <머리를 매만지는 여인>, 39.3×26.3cm,  
다색판화, 1792



[도판5]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53×77cm, 패널화, 1503~1506



[도판6] 장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터키탕>, 직경108cm, 캔버스에유채, 1863



[도판7]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앙그르, <샘>, 165×80cm, 캔버스에 유채, 1856

[도판8]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130.5×190cm, 캔버스에 유채, 1863

[도판9] 마르셀 뒤샹, <로즈 셀라비>, 사진(만레이), 76.2×43.18cm,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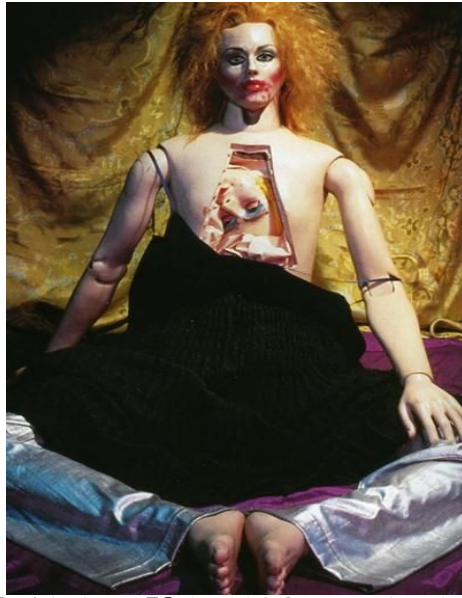


[도판10] 프랜시스 베이컨, <Painting>, 198×132cm, 캔버스에유채,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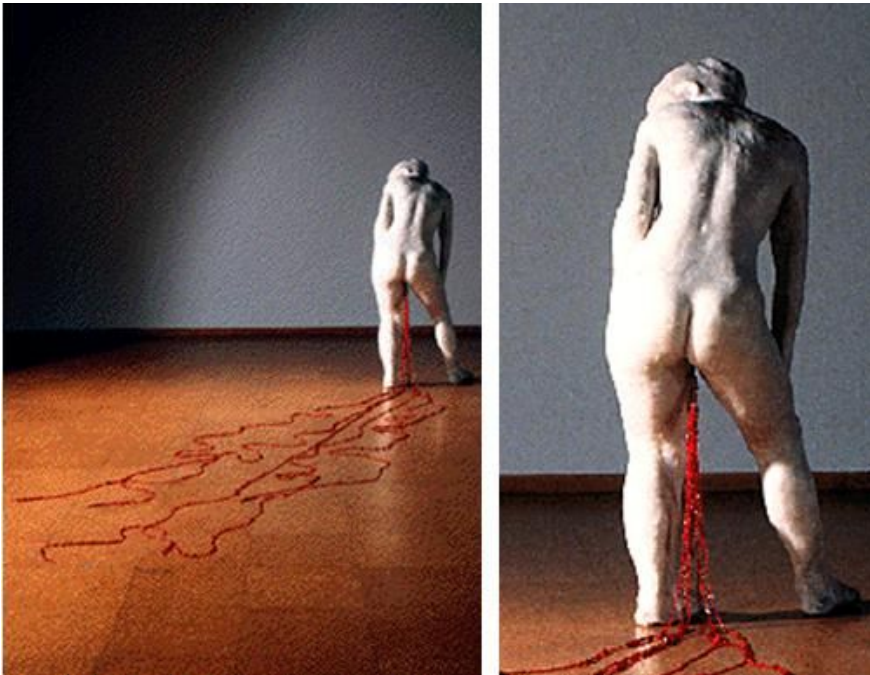
[도판12] 루이스 브루주아, <작은 소녀>, 59.7×26.7×19.7cm,  
석고 위 라텍스, 1968



[도판11] 게릴라 걸스,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만 하는가?>, 포스터, 1989



[도판13] 신디셔먼, <Untitled>, 172.1×114.3cm, colorphotograph, 1994



[도판14] 키키 스미스, <Untitled (Train)>, 53×55×168cm, wax with beads, 1994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광우, 『위홀과 친구들』, 미술 문화, 1997.
- 고바야시 다다시, 『우키요에의 미』, 이다미디어, 2004.
-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재원, 1998
- 린다 노클린,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정연심 역, 조형교육, 2001
- 미와 마사시, 『몸의 철학』, 서동은 역, 해와 달, 2002.
- 이연식,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아트북스, 2009.
- 심상용, 『현대미술의 욕망과 상실』, 현대미학사, 1999.
- 제미란, 『길위의 미술관』, 문화미래이프, 2007.
-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교재, 2002.
- 크리스토 도미노, 『베이컨-회화의 괴물』, 성기완 역, (주)시공사, 1998.
- 피종오, 『몸의 위기』, 까치글방, 2004.
- 홍덕선, 박규현,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한림미술관, 이대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기사

- 김용옥, 『 동양 氣 철학/ 모든 진리, 인간의 몸속에 있다 』, 동아일보, 1997.10.14

# ABSTRACT

Representation of body image through byeonhyeondo

- Centering around My Work -

**Kwon, Eun Joo**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paper I worked for almost 3 years since 2007 in October 2009 solo exhibition of his work (the muscle show off) to work around, it's a concrete way to analyze the content and presentation is described.

As I have been doing this job as a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art was often. What is art? It is a beautiful art? If so, what is beauty? One considers the meaning of life as an artist and the meaning of art and I could not relate to. In addition, assuming the beauty of art and beauty of the content of art, really when you think that an important part when you found out what a wonder of beauty that had to emerge. I answer the question of the human body(skin) and looked through. The past of Leonardo da Vinci(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 ~1519) and Michelangelo (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 ~1564) and anatomical dissection of the human figure through the beauty of art, the human As we understand beauty as a tool, I removed the skin, the skin of the morphology of the human body through anatomical inner beauty, not to browse.

I factors outside of the body that had led to questions about the skin. Skin(skin) senses the importance of the human form surrounded, each

appears to recognize the appearances of human skin is determined by this beauty. If you remove the skin, beauty, What could be defined as? The beauty of art is removed, where the meaning would be to find? Became the question. I removed the external beauty in a beautiful body, look inside, but that does not change is the body is regulated. For the beauty of it is visible after removing the elements that are considered external muscle, skin, the inside outward appearance of the world, rather than by drawing the human gut, to be conscious of the principal was aware of the true side. Using the motif of the muscles by lifting the skin, eyes, skin, had not noticed in the truth, inconvenient, but everyone has tried to contain the face of the evil. And by using the anatomical images of men are deprived of the peep show, earlier age of women look for men in the picture, not the subject tried to express as a woman. I borrowed works by replicating the work of the past, 'past' come down from the standard of beauty, beauty kkaegoja the definition was seen in the past, pictures of women because women felt through the image of the borrower s personal things from the social criticism bare attention and social problems through the skin and exaggerated expression of the muscle w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se concepts and questions focused on my work has been described by. To help you understand the work of ar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the body and body image of meaning and symbolism in my work was discussed in detail. Deterioration of modern society is also going to grasp the meaning of the body and, based on the social issues caused by the desire was captured by a perspective on the human. In addition, through the works of my work in looking after removing visible external elements of the meaning of inner beauty, was focused on exploring